

大入 論述型考査의 出題와 採點

朴 道 淳
(高麗大 敎育學科)

論述型 考査制度는 현행 大學入學 學力考査의 내재적 결함을 보완하고 新入生 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自律性을 신장하여 入試制度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제도의 정착 여부는 考査問題를 어떻게 출제하고 채점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와 채점에 관한 문제를 간략히 고찰해 보려 한다.³⁾

I. 序

문교부가 1984년 4월에 大入 改善案을 발표하면서 '86학년도부터 大學別 論述考査¹⁾의 실시를 천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되어 구성력, 조직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등을 거의 평가할 수 없게 되는 내재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신입생 선발에서 대학의 自律性을 가능한 한 신장하며, 대학 입시제도의 妥當性을 제고하려는 목적”²⁾에서 채택되어졌다.

이 논술형 고사제도의 정착 여부는 고사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고 채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타당하고 적절한 문항을 제대로 출제했느냐와 동시에 출제된 문항을 어떻게 채점하느냐 하는 채점에서의 신뢰성이 논술형 고사 정책의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술형 고사의 출제

II. 論述型考査 問題의 出題

논술형 고사 문제의 출제는 제작 절차상 선택형 고사 문제의 출제보다 쉬운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⁴⁾ 그러나 그러한 이해가 논술형 고사의 출제가 무원칙하거나 간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논술형 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때에는 몇 가지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또 그에 따라 방법상으로 결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출제의 일반 원칙과 출제방법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出題의 一般原則

논술형 고사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서 출제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논술형 고사의 특성과 실

시 목적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논술형 고사 실시 목적과 특성을 ‘고교교육 正常化’, ‘학생의 學習態度 변화’, ‘보다 중요한 教育目標의 평가’,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自律權 신장’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첫째, 학생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思考能力(구성력, 조직력, 논리적 전개력, 표현력, 종합력, 비판력 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문제로 출제하여야 한다. 이 원칙에서 특히 표현능력이 다른 사고능력과 아울러 평가되어야 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제를 제작함에 있어서 과제 또는 資料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이 과거에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사태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셋째, 각 문제의 출제 목적과 응답의 方向性을 분명히 하여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즉 주어진 질문이나 과제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학생에게 명료히 전달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써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에서 학생이 쓸 내용과 방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논술형 고사의 장점을 손상시킨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모든 응시학생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즉 응답의 質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나, 최소한 모든 학생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남·여, 도시·농촌 등에 따라서 학생이 답을 하는 데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에 응답하여 비교적인 방법으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擇一止揚的으로 출제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문제의 난이도나 학생의 반응 범위를 비슷하게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택해서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방식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주며, 채점도 一貫性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⁵⁾에 근거하고 있다.

2. 出題의 方法

여기에서 논술형 고사의 출제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를 필자의 관점에서 제

안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1) 問題出題의 形式 및 內容

(1) 문제의 반응 양식은 ‘擴大反應型’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근본적으로 앞에 설명한 출제의 일반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건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강조되어진다면, 비록 채점상의 제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思考能力’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응 형식이 채택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즉 논술형 고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학생의 학습방식이나 고등학교 교육에서 암기 중심의 교수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확대반응형’이 ‘制限反應型’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2) 문제 응답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資料提示型’ 문제의 출제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다음에 제안하는 평가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單獨課題型’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면 학생이 갖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의 양이 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어 앞에 제시한 ‘확대반응형’의 의의를 부분적으로 손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되는 ‘자료제시형’ 출제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의 영향을 배제(이 경우 암기교육을 어느 정도 배제)하여 학생들의 광범위한 독서를 장려하게 되고 어떤 문제에서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하도록 유도해 주게 된다.

(3) 表現能力이 포함된 汎教科的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할 것을 제안한다. 누구나 일단 답을 할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사고능력’ 중심의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관련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표현능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능력은 넓은 의미로 보아 아주 주요한 사고능력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철자법, 피어쓰기, 필체 등의 요소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2) 系列 區分

문제의 출제는 학생들의 응시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출제할 수도 있고 구분하지 않고 출제할

수도 있다. 구분해서 출제한다고 해도 대계열별(문과, 이과), 중계열별(일종의 단과대학별), 소계열별(학과별)로 다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어떤 구분을 기초로 해서 출제할 것인가는 출제하는 대학의 여건과 논술형 고사 출제의 기본 입장(사고력을 평가할 것인지, 교과관련 영역을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평가관리 행정의 편이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大系列別 出題를 제안한다. 대계열별 출제를 제안하는 이유는 앞의 세 가지 측면(대학의 여건, 출제 입장, 평가관리)에서 대계열별이 가장 合理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첫째, 앞의 문제형식과 내용에서 이미 제안한 것과 같이 표현능력을 포함하는 사고력을 평가한다고 할 때는 특정 교과영역의 지식이 어느 정도 배제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구태여 여럿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입시제도에서 複數志望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논술형 고사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수지방이 가능한 영역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은 일의 양을 줄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응시자의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채점자가 다름으로써 생기는 誤謬'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의 출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종류의 문제를 제작하는 것보다 적게 集中的으로 출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出題 및 選定委員의 構成原則 및 數

(1)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을 구분하고, 中系列別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출제위원과 최종문제 선정위원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질 향상과 편파적인 문제의 제거 및 보안 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정위원이 다시 한번 문제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다 좋은 질의 문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강화되어지고, 출제된 여러 문제에서 최종적인 문제를 선택함으로써 문제의 보안 유치가 한 단계 더 강화되어지며, 성적에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을 줄지도 모

르는 문제 영역의 偏頗性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을 중계열별로 구성하는 것은 영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파생될지도 모르는 출제 영역의 비합리성을 제거하고 學校的으로 출제와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출제된 문제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데⁶⁾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 출제위원의 數는 많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위원은 평가관리의 핵심요원과 대계열별 핵심요원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출제위원의 수를 많이 하는 것이 여러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극대화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기준 설정에 보다 합리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제에서의 경비, 관리, 보안유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중계열별 2~3명 정도씩을 위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출제위원을 核心要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질관리, 평가실시에 대한 지지도 확보 및 후에 이루어질 채점상의 문제 및 행정상의 문제타결에 效率的이기 때문이다.

선정위원의 수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정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며, 선정위원에 평가관리 핵심요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검사실시의 책임과 한계 그리고 제반 평가시행 실시 여건을 고려한 意思決定이 보다 쉽게 반영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정위원은 평가관리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5~6인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4) 出題問題의 數 및 時間

출제되는 문제의 수는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문제의 유형 그리고 채점의 여건과 밀접히 관련되어져 있다. 필자는 대계열별로 한 개의 자료에 2~3개의 문항이⁷⁾ 포함되어져 출제될 것을 제안한다. 계열별로 2~3개의 문항이 포함된 1개의 문제를 제안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확대반응형-자료제시형-사고력(표현능력이 포함됨) 측정 문제의 출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特性과 문제해결의 소요시간(현실적으로 보아 120분을 넘기기는 어려울 듯)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수를 늘리는 것은 학생에게 충분한 問題解決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⁹⁾ 전제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자체가 교과목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사고력과 표현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의 妥當性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논술형 고사의 소요시간을 120분 이내로 주장한 것은 '學力考查'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논술형 고사 성적을 入學査定에 10%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요시간은 최종적으로 논술형 고사 문제가 결정됨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論述型考查 問題의 採點 및 査定方法

論述型考查의 가장 큰 難點은 採點의 非信賴性(客觀性의 缺如)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점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서 논술형 고사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⁹⁾

1. 採點의 一般原則

논술형 고사 문제를 객관적으로 채점하기 위해서는 채점의 客觀化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문제를 구조화시키고, 채점자의 수를 제한시키며, 능력 있는 채점자를 선정하고,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채점하며, 채점자의 채점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

첫째, 채점 기준을 사전에 명료히 함으로써 채점자간에 생길 수 있는 오류와 채점자 내의 오류(비일관성의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때의 채점기준은 채점의 요소와 각 요소의 配點이 분명하게 결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특히 채점자의 一貫性 있는 채점을 위해 모범 답안을 제작해 볼 필요도 있다.

둘째, 問項간의 比重을 너무 넓게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즉 문항간의 비중이 크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 내용이 지나치게 전체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사고력과 표현력'을 재는 문항을 출제할 경우

문항간의 비중을 크게 달리 하는 것은 합리화되기 어렵다.

셋째, 학생단위가 아닌 問題와 問項單位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한 문항의 채점 기준이나 결과가 다른 문항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채점자의 內的一貫性을 유지하게 하고 채점을 보다 신속히 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네째, 출제자가 채점에도 참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사람에 의하여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채점보다는 능력을 갖춘 여러 사람에 의해 채점되는 것이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채점자의 수 및 채점시간을 최소화하여 채점자간 및 채점시간의 차이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채점의 긴박성, 그에 따른 일인당 채점 분량, 능력 있는 채점자의 차출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표현능력 채점시 필체, 띄어쓰기, 철자법 등은 점수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일곱째, 채점시에 채점자가 나타내는 편견이나 오류¹⁰⁾를 극소화하여야 하고, 채점시 생기는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채점자를 한 장소에 모아 채점하도록 하여야 한다.

2. 採點方法

여기에서 논술형 고사의 채점에 관련된 요소를 제시하고 각 요소별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採點의 方式

논술형 고사의 채점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¹¹⁾ 수 있다. 즉 분석적 방법 (Analytical Method), 개관적 방법 (Holistic or Global Method), 절충적 방법 (Eclectic Method)이 그것이다.

"分析의 方法은 채점의 기준을 요소로 분석해서 배정하고 그 각자의 기준에 따라 채점한 다음에 득점을 종합하는 방법이며, 概觀의 方法은 문항 전체를 전체적, 총체적 관점에서 평정하는 방법이고, 折衷의 方法은 개관적 채점 방법을 이용하여 답안을

몇 개의 등급으로 평정한 다음, 분석적 방법으로 점수를 매기거나 평정, 분류하는 방법이다”¹²⁾

(1) 대학 논술형 고사의 채점방식으로 折衷的方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을 채점 절차에 따라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 ① 1차 問項別 評定 : 채점기준이나 모범 답안을 염두에 두고 문항별로 5단계 평정을 실시한다.¹³⁾ 즉 그 문항의 점수를 5개의 점수대로 구분하여 각 답안지를 해당 점수대에 분류하게 한다. 특히 이 경우 논술형 고사 점수의 選別機能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각 점수대별 분류비율을 잠정적으로 정해 준다.¹⁴⁾ 문항별 평정에서 복수 채점자간에 차이가 생길 경우 한 점수대의 차이는 제 3자에 의해 재평정하고, 두 점수대차이는 평균을 낸다.¹⁵⁾
- ② 2차 點數帶內의 要素別 點數化 : 점수대가 결정되었으므로 그 점수대 내에서 점수를 주되 소수점을 없애기 위하여 짝수 점수를 주고 이를 평균한다.¹⁶⁾

(2) 점수의 차를 크게 하여 論述型 考査의 입시 사정에 주는 영향을 極大化할 것을 제안한다. 논술형 고사가 고교교육에 영향을 주어 ‘教育 正常化’를 촉진시키려면 그 점수가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주도록 채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안된 논술형 고사의 성격으로 보아(사고능력을 평가한다는 특성) 아무리 잘못 반응했다라도 최소한의 점수는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관점에서의 최소 점수는 입시사정 총점에서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안한 채점 방식을 따르고 입시사정 비율을 10%로 한다면 10점부터 56점까지의 점수가 가능하게 된다.

2) 採點委員의 構成原則 및 數

(1) 채점위원은 일차적으로 出題委員, 選定委員으로 구성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포함시키되 표현능력 측정을 위해 國語專攻者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채점위원으로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 문제의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 전공자를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이 논술형 고사의 문제

영역 중에서 ‘表現能力’의 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전문가란 문제 영역과 채점기준에 충분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2) 채점위원의 수는 가능한 한 적게 하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채점위원수를 적게 하려는 의도는 채점자간에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적게 하고 채점의 內的인 一貫性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각 문항에 2인 이상의 채점자가 있어야 하고 채점을 관리할 요원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채점위원의 수는 능력 있는 채점자의 확보 여건, 채점에 필요한 시간들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약 만명의 응시자가 있다면(제열별 5,000명) 최소한 제열별로 30명(2인 1조인 경우 15개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개조가 약 300명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며 또 시간적으로도 비교적 빠르게 채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채점관리요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수자임).

3. 論述型 考査의 査定方法

논술형 고사의 사정은 근본적으로 文敎部의 지침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다. 문교부에 의하면 대입 학력고사 성적은 50% 이상, 내신성적은 30% 이상, 논술고사 성적은 10% 이내로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학력고사 총점을 340점으로 하고 대입학력고사 성적 60%, 고교 내신성적 30%, 논술고사 성적 10%로 하면 내신성적 총점은 170점, 논술고사 총점은 56.7점이 된다. 이상과 같은 계산은 대학에서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을 어떤 비율로 정하는가에 따라 논술고사의 성적반영 비율이 달라지는 것임을 나타내 준다.

필자는 학력고사 60%, 내신성적 30%를 반영하여 논술고사의 문교부에서 허용한 최대 비율인 1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논술고사의 실시 목적이 ‘대학의 선발 自律權 일부 부여’와 ‘고교교육 正常化’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비중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위 논술고사의 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註〉

- 1) 문교부안의 논술형 고사다 함은 “대학 입학생의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교과목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소재를 대상으로, 논문형 형태로 출제되고, 주관적 방법으로 채점되는 고사”를 의미한다.
- 2) 김종서외, 대학 입시제도 연구—대학별 논술고사의 출제, 채점 및 사정 방법에 관한 연구, 문교부, 1984 (p.3).
- 3) 본고는 ‘논술형 고사 심도지움’ (고려대학교 1984. 12. 1)에서 발표한 것 중 “문제의 출제와 채점”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4) 논술형 고사 문제 제작을 채점기준 또는 모범 답안지 작성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선택형 고사문제 제작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5) 택하여 답하도록 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은 다음 책이나 논문에서 누누히 지적되고 있다.
 - Stalanka, J.M., The Essay Type of Examination, In E.F. Lindquist (Ed.), Educational Measurement,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51. (Chapter 13)
 - Coffman, W.E., Essay Examinations, In R.L. Thorndike (Ed.), Educational Measurement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71. (chapter 10)
 - Wilson, J.A. Question Choice in A-Level Physics, Curriculum studies, 1976, p. 8, pp. 71~78.
 - 황정규, 「교육평가」, 교육출판사, 1967. p. 220 등.
- 6) 고사출제에서 여러 분야의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검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으로 검사 전문가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 7) 여기에서 문항이라 함은 전체 큰 문제 속에 포함된 하위문제를 뜻한다.
- 8) 논술형 고사 문제는 ‘속도검사’가 아니라 ‘능력검사’에 해당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응답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면 ‘시간’ 자체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아닌 한 합리적이 못 되기 때문이다.
- 9) 논술형 고사에서 채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는 많은 연구 및 서적을 통해 누누히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Starch와 Elliot의 연구(1912), Eells의 연구(1930), Stalnaker의 연구(1933) 및 각종 평가책에서 비실효성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 10) 채점시 갖게 되는 채점자의 오류는 ‘집중화 경향의 오류’, ‘표준의 오류’, ‘인상의 오류’, ‘대비의 오류’, ‘논리의 오류’ 등으로 대별되어질 수 있는바, 이런 오류들의 제거는 명료한 채점기준, 각 채점요소의 독립성 인정, 평가의 내적 기준의 일관성 등을 늘 염두에 두고 채점하여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 11) Nitko, A.J. 전게서, pp.151~53와 김종서 외, 전게서, p.9를 참조하기 바람.
- 12) 김종서외, 전게서, pp.9~10에서 필요 부분을 재구성하여 인용한 것이다.
- 13) 5단계로 평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후에 논의될 점수반영 비율과 논술형 고사 점수의 교육적 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 14) 응시자 수를 채점 전에 5개 점수대에 일정 비율로 배분해 주는 것은 그 문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만드시 배분된 비율에 따라 평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참조하여 채점하라는 의미이다.
- 15), 16) 이 경우 평정자를 2인으로 간주한 것으로 채점자 수에 관한 논의는 다음 항목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람.